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자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

경색된 북남관계의 지속으로 국토분렬의 깊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통일을 소원하는 온 겨레의 통환은 더이상 방임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민족앞에 확약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고귀한 정신마저 여지없이 유린되어가고있는것이 오늘들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가슴아픈 이 현실을 하루빨리 바로잡으려는 절세의 애국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남조선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들에 내보낸 우리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 대한 호응도 팽당하였다.

지어 지난 2월 힘겹게 마련된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이룩한 소중한 합의마저 민중이장으로 되어가고있다. 여기에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가슴아픈 현실을 바로잡아나가야 할 우리 민족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엄중하게 번져가고있는 북남관계에는 아랑곳함이 없이 대결일면에 집착되어 주장아닌 《주장》과 선언아닌 《선언》으로 통일문제를 우롱하여 온 남조선당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속에서도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각계각층 민중의 목소리는 더더욱 높아지고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로 번져가고있다. 삼천리강토에 끓어치는 이러한 열기는 7.4공동성명발표 42돐을 앞두고, 민족의 구성이시며 대정치권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 북남최고위급회담에 관한 역사적 문건에 불멸의 최종서명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7월 7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특히 7월부터 북남사이에 예견되고

있는 여러가지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정치실무적일정들이 여론화됨에 따라 이러한 열기는 더이상 막을수 없는 열도로 타변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온 겨레의 념원과 민족모두의 민심을 반영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단호한 결심으로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특별히 제안한다.

1. 자주성의 원칙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여 북남사이에 산적되어있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것을 민족앞에 다시금 확약하자.

자주의 원칙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민족앞에 약속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우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북남화해와 협력, 불가침에 관한 합의도 이룩하였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7.4공동성명이 채택된 42돐을 계기로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에 채택된 모든 성명, 선언들과 합의를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할것을 온 겨레앞에 다시금 확약할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자주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아닌 《주장》, 선언아닌 《선언》들을 전면철회하고 동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모든 공조체제를 전면철회할것을 요구한다.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귀중한 공동자산인 우리의 핵억제력을 결코고 우리의 병전로선을 헐뜯는것과 같은 백해무익한 처사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당면하여 자주성의 원칙에 따른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한대로 7월 4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온갖 비방과 중상, 그와 관련된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릴것을 호소한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미 천명한대로 2월합의를 순간에 리행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

2. 평화통일의 원칙에서 북남관계를 전쟁정경으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온 겨레앞에, 세계앞에 보여주자.

평화통일의 원칙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다.

전쟁의 참화로부러 겨레의 생존리전을 지키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담보하려는 애국애족의 정신이 이 원칙에 숨배여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군사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그것은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아무리 복잡다단한 문제라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로서 어느때든지 통일된 한강토에서 화목하게 살게 될 우리 겨레가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에 조선서해열점수역을 포함한 모든 대지계선에서 하루도 쉴새없이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대행위도 7월 4일 0시부터 전면중지하는것으로

나라의 평화보장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진솔한 립장을 밝힐것을 다시금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최근 남조선해군함정들이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해상침범행위와 5개 섬수역에서 매없이 벌리고있는 총포사격중지문제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하여 북남사이에 활발하게 벌어질여러가지 교류와 접촉의 사전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비행대와 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라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여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종지부를 찍을뿐 아니라 올해 8월 미국과 함께 벌리게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계획을 즉시 취소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이 군사연습이 언제나 《넌레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구실밑에 우리를 겨냥하여 벌어지는 침략전쟁연습으로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가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은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서약한 조국통일원칙에 대한 가장 로골적이고 잔혹한 위배행위로 된다.

미국과의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이 그처럼 버릴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것이 라면 우리가 이미 천명한대로 조선반도령역을 벗어난 지역이나 수역에 나가 벌리라는것이다.

우리에 대해 말한다면 최근 우리와의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을 요구하는 주변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 군대가 그것을

수용하여 공화국북반부의 령공, 령해, 령토에서 다른 나라 군대들과 함께 움직이는 일은 없을것이다.

3.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자.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북남관계개선의 원동력이다. 사상과 리념, 제도우에 민족이 있다.

생방의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뭉치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치면 통일의 길은 그만큼 앞당겨질것이다. 갈라지면 망하고 하나로 합치면 강해지는것이 우리 겨레, 우리 민족에게 차례진 숙명이다.

우리는 민족의 구성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1994년 7월 7일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역사적문건에 불멸의 최종서명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날에 즈음하여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남조선당국은 화해와 협력에 불순한 정치적소속타산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동족사이의 화해와 협력은 철두철미 동족을 진실로 위하고 도와주는 실천행동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동토애의 진정이 어린 화해와 협력을 상대방의 《제제전복》과 《흡수통일》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로 리용하려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 동토애적인 자세와 립장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에 관한 진정을 목살하거나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차단한다면 그보다 더 엄중한 반민족적인 대역죄는 없을것이다.

개성공업지구에서도 통행, 통관, 통신의 《3통》질서를 불순하게 리용하려고 획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고수하는 길에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외세가 띄워준 색안경으로 동족을 바라보아도 안되며 사대와 굴종으로 굳어진 머리로 북남관계를 대해서도 안될것이다.

외세보다 민족을 우선시키고 국제적공조보다 겨레를 중시하는 립장에 설 때 비로소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만이 겪고있는 수치와 비극의 분렬사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비분강개하여 떨쳐나서자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민족의 생사존망도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특별제안에 화답하여 고강한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하며 불미스러운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려는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것이다.

운명적인 7월이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주제 103(2014)년 6월 30일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애국애족의 제안

고경식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 기자가 나는 대담

기자: 이번에 발표된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첫 조항인 자주성의 원칙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여 북남사이의 크고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갈것을 민족앞에 다시금 확약하자고 호소한것으로 하여 지금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고경식: 자주성의 원칙은 온 겨레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지금까지부터 42년전 북과 남이 민족앞에 약속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지난 시기 북과 남은 이 원칙에 따라 북남화해와 협력, 불가침에 관한 합의도 이룩하였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채택하였다. 지나온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자주성의 원칙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절대불변의 원칙이다.

이번에 공화국의 국방위원회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에 채택된 모든 성명, 선언들과 합의를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할것을 온 겨레앞에 다시금 확약할것을 남측에 제안한것은 민족의 운명과 앞날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한 애국애족의 용단이다.

자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온갖 주장아닌 《주장》, 선언아닌 《선언》들을 철회하고 동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모든 공조체제를 철회하는것은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으로 얼룩져온 북남관계에 종지부를 찍는데서 판정적인 요구로 나선다.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한대로 역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2돐이 되는 7월 4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온갖 비방과 중상, 그와 관련된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릴것을 호소한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은 자주성의 원칙에 따른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의 최대합의이라고 볼수 있다. 북과 남이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북남관계를 자주성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간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서는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기자: 북남관계를 전쟁정경으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요구가 아닌가.

고경식: 평화통일의 원칙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다. 공화국은 시종일관 이 원칙에 따라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군사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것을 주장하여왔다.

이번에 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조선서해열점수역을 포함한 모든 대지계선에서 하루도 쉴새없이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대행위도 7월 4일 0시부터 전면중지하는것으로

나라의 평화보장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진솔한 립장을 밝힐것을 다시금 제안한것으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우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사실 이것은 올해초 국방위원회가 남조선의 당국과 각계층에게 보낸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도 밝혀져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지휘조종아래 방대한 첨단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린 위협천만한 북침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군사적대행위를

당겨질것이다.

동족사이의 화해와 협력은 철두철미 동족을 진실로 위하고 도와주는 실천행동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동토애의 진정이 어린 화해와 협력을 상대방의 《제제전복》과 《흡수통일》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로 리용하려는것은 너절한 행동이며 화해와 협력에 관한 진정을 목살하거나 화해협력의 길을 차단한다면 그보다 더 엄중한 반민족적인 대역죄는 없을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고수하는 길에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이 있다.

외세가 띄워준 색안경을 벗고 사대와 굴종으로 굳어진 사고관념을 타파하는것은 시대와 민족의 요구이다.

보는바와 같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호소한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애국애족의 제안이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특별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시기적절하고 획기적인 제안

지난 6월 30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고자 공화국의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에 보낸 특별제안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지극히 정당하고 시기적절한것이다.

올해 신년사와 중대제안, 공개서한을 통해 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북남고위급접촉도 진행되고 한차례의 휴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온 겨레의 지향에 배치되는 대규모 《키 리졸브》, 《독수리》북침합동군사연습

의 강행으로 조선반도에는 대결이 아니라 협력과 단합에 이질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온 겨레와 국제사회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대결과 충돌을 막고 파국으로 치닫는 북남관계를 바로잡을 일념에서 특별제안을 남측에 보낸것은 누가 보나 다행스럽고 획기적인 애국애족의 조치이다.

올해에 들어와 연이어 발표되는 국방위원회의 획기적인 제안들만 놓고보아도 북남관계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선하고 전진시켜나가는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립장과 의지를 잘 읽을수 있다고 본다.

조선반도에서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은 이제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 불신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얼마전에 발표된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은 북남관계개선과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애국애족의 제안이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발표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은 조국통일의 대가이다. 외세가 강요한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그 주체는 바로 전체 조선민

족이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나라의 영구분렬을 꾀하는 외세에 의존해서는 언제가도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갈라지면 망하고 하나로 합치면 강해지는것은 력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이다. 환회롭고 경사스러웠던 6.15통일시대가 보여준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슬기롭고 장의감이 강한 우리 겨레가 사사로이 감정을 떠나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칠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전체 성원들은 7.4공동성명발표 42돐과 민족의 한울님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북남최고위급회담에 관한 역사적문건에 불멸의 친필을 남기신 20돐을 앞두고 발표된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북 남 이 힘을 합쳐야

온 겨레의 념원이 반영된 공화국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접한 우리 불교도인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북남관계와 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갈 운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민족의 생존방식인 단결이 곧 북남관계개선의 원동력이라고 한 공화국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은 경색된 북남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마음을 담은 지극히 정당하며 애국애족적인 제안이다. 사상과 리념, 제도우에 민족이 있으며 모든 종교인들은 민족의 운명속에 우리 교인들의 삶도 있다.

며칠전 금강산 신계사에

서 북남불교도인들사이에 공동발원문이 발표된것은 사상과 제도, 정경 등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뭉치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치면 북남관계도 개선되고 통일의 날도 그만큼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실천적인 모범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만이 겪고있는 비극의 분렬사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떨쳐나서야 할 오늘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한 통일애국투쟁의 대

하에 과감히 뛰어들것을 바라고있다.

공화국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우리 조선불교도련방의 전체 불교도인들은 남녘의 불교도인들과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 민족이 하나되어 복락을 누리는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앞섬이고 활력있게 벌려나가겠다.

조선불교도련방 중앙위원회
부장 리영호

